

서동주, '임신 성지' 130년 한의원 찾았다 "난자 채취 10차례·유산 이후 최선"

등록 2026.05.13 18:21:40



[서울=뉴시스] 서동주. (사진 = 유튜브 캡처) 2026.05.1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방송인 서동주가 난임과 유산의 아픔을 딛고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근황을 전했다.

13일 연예계에 따르면, 서동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'서동주의 또.도.동'을 통해 남편과 경주의 한 유명 한의원을 찾은 일상을 공개했다.

해당 한의원은 130년 전통의 내력으로 이른바 '임신 성지'라 불리는 곳이다.

이날 서동주는 그간 10차례에 걸친 난자 채취와 시험관 시술, 그리고 한 차례의 유산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냈다.

진료 후 그는 "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다는 느낌"이라며 "노력했음에도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내 운명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. 마음이 훌가분해졌다"고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.

고(故)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서동주는 지난해 6월 4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재혼해 가정을 꾸렸다. 남편은 연예계 종사자로 알려졌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